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 비교

육길나¹, 최 경², 연헤민^{3*}

¹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²대진대학교 아동학과, ³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Comparison between perception of early child care teachers and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regarding the first aid

Gilla Yuk¹, Kyoung Choi², Hyemin Yeon^{3*}

¹Department of Departmen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ny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aejin University

³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ongmy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인식,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들 변인간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충청남도에서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188명과 동일 지역 소재 대학의 보육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였고, 차이검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인식 중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답변은 보육교사와 예비교사가 차이를 나타냈다. 심폐소생술 인식과 이에 대한 교육 참여인식은 보육교사와 예비교사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응급상황에 따른 처치방법에 대한 인식에서 오답률이 높은 상황으로 보육교사와 예비교사 전체는 끼임, 중독, 구토, 물림 순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보육교사는 중독, 끼임, 구토, 물림 순인데 반해, 예비교사는 끼임, 구토, 중독, 물림 순으로 나타나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나타냈다. 보육교사와 예비교사가 차이를 나타낸 상황으로 출혈(상처), 고열, 심폐소생술로 모두 보육교사의 정답률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양한 응급처치 상황에 대한 실습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first aid and differentiate between factors. The research subjects were 188 childcare teachers who work for day care centers in Chungchungnam-do, Republic of Korea and 70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who major in childcare in colleges in the same area. Collected data were converted to frequency and percentage, and cros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difference verification.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perception of first ai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childcare teachers and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in their ability to cope with an emergency situation and responses to questions regarding frequent emergency situation. Second, the percentage of incorrect answers was high in the questions about impaction, poisoning, and biting.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nswers of childcare teachers and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in questions about bleeding(injury), high fever, and CPR. In all of these questions,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f childcare teachers was higher. Regarding this result, clinical training for various emergency situations is needed.

Keywords : Childcare teachers,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First aid, Day care centers, Perception

*Corresponding Author : Hye-Min Yeon(Tongmyong Univ.)

Tel: +82-51-629-2158 email: hyemin29@tu.ac.kr

Received November 1, 2016

Revised (1st March 3, 2017, 2nd March 9, 2017)

Accepted March 10, 2017

Published March 31, 2017

1. 서론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통계 중 14세 이하 아동은 안전사고의 고 위험 군으로 2014년 전체 연령 사망률 5.6%와 비교해 10.5%를 나타내 거의 2배 가량의 격차를 나타냈다[1]. 특히, 영유아인 1-5세는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을 경험한 손상 사고 경험율이 7.1%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도가 아닌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구체적인 원인은 ‘추락/미끄러짐’, ‘부딪힘’ 등이 60.4%를 차지하였다[1]. 이상의 결과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아는 환경에 대한 인식능력이 부족하고, 대소근육의 조절력이 아직 미숙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유아는 호기심이 왕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반해 자기 중심적 사고로 타인이 항상 자신을 인식하고 주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환상과 실재를 혼동하여 위험한 행동을 보여 늘 사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2][3]. 예견되지 않은 사고는 응급상황을 초래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형태에서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가족 지원 부족으로 영유아들이 가정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4]. 따라서 장시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은 필수 요소이며,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중요하다[5]. 이에 대해 Lee와 Jo[6], Kim, Park과 Yi[2], Hong[7]은 보육교사 및 유아교사의 응급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영유아의 안전에 대해 보육교사의 인식이 높지 않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Yang과 Kwon[8]은 보육교사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응급상황 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할 것을 우려하였다. Damjan과 Rok[9]의 연구에서도 유아교사들 대부분이 구체적인 응급상황과 초기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부족과 실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Hwang, Oh와 Cho[10]의 연구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응급처치 수행자 심감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교사에 대한 Moon[11]의 실태연구에서도 안전에 대한 지식과 대처능력이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Lee, Choi와 Cheon[12]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사가 유아의 심정지, 급성 기도폐쇄 상황을 경험하는데도 그 중 극히 일부만 심폐소생술을 시

행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보육교사 및 유아교사와 예비교사 모두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습관화 될 정도로 지속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지식과 안전행동의 관계성은 높아 현장에서의 민첩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13, 14]. 이는 앞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예비교사도 해당된다.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는 유아안전교육 강의를 이수한 집단인 경우 안전교육에 대한 개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15]. 따라서 어린이집교사 이전에 예비교사부터 이러한 안전교육은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비교사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보육교사와 예비교사를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드물다. 예비교사와 보육교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 및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는 두 번인 모두 응급처치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예비교사보다 보육교사가 당연히 인식의 정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교사 연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응급 처치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대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처치 방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188명과 동일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보육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scription of the variables

| variables | division | N | % | |
|--|--|-------------|------|------|
| Age | The twenties | 87 | 46.3 | |
| | The thirties | 61 | 32.4 | |
| | The forties | 36 | 19.1 | |
| | The fifties | 4 | 2.1 | |
| Education | The institute for childcare teachers | 10 | 5.3 | |
| | The online course for childcare teachers | 13 | 6.9 | |
| | Community college | 60 | 31.9 | |
| | Bachelor's degree | 93 | 49.5 | |
| Major | Master's degree and more | 12 | 6.4 | |
| | Childcare | 39 | 20.7 | |
| | Infantile education | 98 | 52.1 | |
| | Child welfare | 15 | 8 | |
| Child care teachers | The institute for childcare teachers | 17 | 9 | |
| | ETC | 19 | 10.1 | |
| | Work experience | 1yr - 3yr | 90 | 47.9 |
| | | 4yr - 6yr | 53 | 28.2 |
| 7yr and more | | 45 | 23.9 | |
| Type of childcare center | National | 39 | 20.7 | |
| | Corporational | 1 | 0.5 | |
| | Private | 93 | 49.5 | |
| | Workplace | 50 | 26.6 | |
| Age of children in charge | House | 5 | 2.7 | |
| | 0 year-old | 23 | 12.2 | |
| | 1 year-old | 38 | 20.2 | |
| | 2 year-old | 56 | 29.8 | |
| | 3 year-old | 34 | 18.1 | |
| | 4 year-old | 20 | 10.6 | |
| | 5 year-old | 13 | 6.9 | |
| Mixed-age | 4 | 2.1 | | |
| Subject of first aid completion (in college) | Yes | 96 | 51.1 | |
| | No | 92 | 48.9 | |
| Training of first aid completion (Incumbently) | Yes | 156 | 83 | |
| | No | 32 | 17 | |
| Total | | 188 | 100 | |
|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 Age | 20 year-old | 6 | 8.6 |
| | | 21 year-old | 27 | 38.6 |
| | | 22 year-old | 27 | 38.6 |
| | Education | 23 year-old | 5 | 7.1 |
| | | 24 year-old | 2 | 2.9 |
| | | ETC | 3 | 4.2 |
| Education | Junior | 37 | 52.9 | |
| | Senior | 36 | 47.1 | |
| major | Community college | 36 | 51.4 | |
| | Bachelor's degree | 34 | 48.6 | |
| Subject of first aid completion (in college) | Childcare | 33 | 47.1 | |
| | Infantile education | 37 | 52.9 | |
| Subject of first aid completion (in college) | Yes | 65 | 92.9 | |
| | No | 5 | 7.1 | |
| Total | | 70 | 100 | |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Lee와 Jo[6], Kim, Park 과 Yi [2]의 논문을 참고로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보육전문가 2인, 보육교사 대상 안전교육 담당자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 7인과 예비교사 5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에서 제시한 상황과 문항의 내용을 어린이집에 적합하고,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보육교사의 일반적인 배경에 대한 조사 10문항, 예비교사의 일반적인 배경에 대한 조사 5문항, 응급상황에 따른 대처 인식 조사(대처능력, 심폐소생술 인식, 심폐소생술교육 참여, 응급상황 중 많이 발생하는 상황 인식) 4문항, 응급상황에 따른 처치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출혈(상처), 출혈(코피), 낙상, 추락, 화상, 중독, 끼임, 질식, 고열, 구토, 이물질 들어간 경우, 물림, 심폐소생술)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6년 2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200명과 보육관련학과 예비교사 7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보육교사용 설문지 190부, 예비교사 설문지 73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무응답이 많은 보육교사용 설문지 2부와 예비교사 설문지 3부를 제외하고, 보육교사용 설문지 188부, 예비교사 설문지 70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배경은 빈도분석으로, 응급처치 상황에 대한 인식조사와 응급상황에 따른 처치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는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대처 인식 비교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대처 인식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The comparison between perceptions regarding emergency situation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and childcare teachers

| Question 1 | Preservice | | Total | |
|--|---|--------------------|--------------|---------------|
| | Childcare teachers | childcare teachers | | |
| Unknowingness | 7 (3.7) | 12 (17.1) | 19 (7.4) | |
| The ability to cope with emergency situation | Educated, but cannot cope with in actual situations | 167 (88.8) | 51 (72.9) | 218 (84.5) |
| | Able to cope with emergency situations well | 14 (7.4) | 5 (7.1) | 19 (7.4) |
| | ETC | 0 (0) | 2 (2.9) | 2 (0.8) |
| | Total | 188 (100) | 70 (100) | 258 (100) |
| χ^2 (df) | | 19.39(3) *** | | |

| Question 2 | Preservice | | Total |
|---------------|--------------------|--------------------|---------------|
| | Childcare teachers | childcare teachers | |
| Knowingness | 185 (98.4) | 70 (100) | 255 (98.8) |
| Unknowingness | 3 (1.6) | 0 (0) | 3 (1.2) |
| Total | 188 (100) | 70 (100) | 258 (100) |
| χ^2 (df) | | 1.13(1) | |

| Question 3 | Preservice | | Total |
|---------------------------|--------------------|--------------------|---------------|
| | Childcare teachers | childcare teachers | |
| Willing to participate | 183 (97.3) | 70 (100) | 253 (98.1) |
| No willing to participate | 5 (2.7) | 0 (0) | 5 (1.9) |
| Total | 188 (100) | 70 (100) | 258 (100) |
| χ^2 (df) | | 1.90(1) | |

| Question 4 | Preservice | | Total |
|-----------------------------------|--------------------|--------------------|--------------|
| | Childcare teachers | childcare teachers | |
| Bleeding | 14 (7.4) | 17 (24.3) | 31 (12) |
| Falling down | 10 (5.3) | 10 (14.3) | 20 (7.8) |
| Poisoning (Swallowing substances) | 0 (0) | 3 (4.3) | 3 (1.2) |
| Burn | - | - | - |
| Choking | 1 (0.5) | 8 (11.4) | 9 (3.5) |
| Impaction | 12 (6.4) | 5 (7.1) | 17 (6.6) |
| Biting (by insects or a person) | 77 (41) | 6 (8.6) | 83 (32.2) |
| Substances in eyes, nose, or ears | 2 (1.1) | 10 (14.3) | 12 (4.7) |
| High fever, vomiting | 71 (37.8) | 11 (15.7) | 82 (31.8) |
| ETC | 1 (0.5) | 0 (0) | 1 (0.4) |
| Total | 188 (100) | 70 (100) | 258 (100) |
| χ^2 (df) | | 86.77(8) *** | |

***p < .001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대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chi^2(3)=19.39, p<.001$)과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응급상황인식($\chi^2(8)=86.77, p<.001$)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은 대처방법을 모른다고 답변한 비율이 보육교사 3.7%인데 반해 예비교사는 17.1%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고,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응급상황으로 보육교사의 41%가 벌레나 사람에 물린 경우, 37.8%가 고열, 구토라고 답변한 데 반해, 예비교사는 24.3%가 출혈, 15.7%가 고열, 구토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심폐소생술 인식에서는 보육교사 98.4%, 예비교사 100%가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답변은 참여하겠다는 보육교사 97.3%, 예비교사 100%로 나타나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2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처치방법에 대한 인식 비교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처치방법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The comparison between perceptions regarding reaction in emergency situation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and childcare teachers

| | | correct answer | incorrect answer | Total | χ^2 (df) |
|--|----------------------------|---------------------|----------------------------|--------------|---------------|
| | | Bleeding (abrasion) | Childcare teache (92.6) | | |
| | Preservice childcare teach | 65 (92.9) | 5 (7.1) | 70 (100) | |
| | Total | 239 (92.6) | 19 (7.4) | 258 (100) | |

| | | correct answer | incorrect answer | Total | χ^2 (df) |
|--|----------------------------|----------------|----------------------------|--------------|---------------|
| | | epistaxis | Childcare teache (83.5) | | |
| | Preservice childcare teach | 51 (72.9) | 19 (27.1) | 70 (100) | |
| | Total | 208 (80.6) | 50 (19.4) | 258 (100) | |

| | | correct answer | incorrect answer | Total | χ^2 (df) |
|--|----------------------------|--------------------|----------------------------|--------------|---------------|
| | | Falling from rides | Childcare teache (90.4) | | |
| | Preservice childcare teach | 57 (81.4) | 13 (18.6) | 70 (100) | |
| | Total | 227 (88) | 31 (12) | 258 (100) | |

| | | correct answer | incorrect answer | Total | $\chi^2(df)$ |
|---------------------|----------------------------|----------------|------------------|-----------|--------------|
| falling from a tree | Childcare teache | 138 (73.4) | 50 (26.6) | 188 (100) | 2.02 (3) |
| | Preservice childcare teach | 46 (65.7) | 24 (34.3) | 70 (100) | |
| | Total | 184 (71.3) | 74 (28.7) | 258 (100) | |
| | | | | | |
| Burn | Childcare teache | 172 (91.5) | 16 (8.5) | 188 (100) | 2.66 (2) |
| | Preservice childcare teach | 67 (95.7) | 3 (4.3) | 70 (100) | |
| | Total | 239 (92.6) | 19 (7.4) | 258 (100) | |
| | | | | | |
| Poisoning | Childcare teache | 37 (19.7) | 151 (80.3) | 188 (100) | 3.22 (3) |
| | Preservice childcare teach | 20 (28.6) | 50 (71.4) | 70 (100) | |
| | Total | 57 (22.1) | 201 (77.9) | 258 (100) | |
| | | | | | |
| mpaction | Childcare teache | 38 (20.2) | 150 (79.8) | 188 (100) | 8.81 (4) |
| | Preservice childcare teach | 10 (14.3) | 60 (85.7) | 70 (100) | |
| | Total | 48 (18.6) | 210 (81.4) | 258 (100) | |
| | | | | | |
| Choking | Childcare teache | 161 (85.6) | 27 (14.4) | 188 (100) | .74(3) |
| | Preservice childcare teach | 59 (84.3) | 11 (15.7) | 70 (100) | |
| | Total | 220 (85.3) | 38 (14.7) | 258 (100) | |
| | | | | | |
| High fever | Childcare teache | 147 (78.2) | 41 (21.8) | 188 (100) | 34.67 (4)*** |
| | Preservice childcare teach | 32 (45.7) | 38 (54.3) | 70 (100) | |
| | Total | 179 (69.4) | 79 (30.6) | 258 (100) | |
| | | | | | |
| vomiting | Childcare teache | 50 (26.6) | 138 (73.4) | 188 (100) | 6.94 (4) |
| | Preservice childcare teach | 18 (25.7) | 52 (74.3) | 70 (100) | |
| | Total | 68 (26.4) | 190 (73.6) | 258 (100) | |
| | | | | | |
| Substances in nose | Childcare teache | 177 (94.1) | 11 (5.9) | 188 (100) | 5.61 (3) |
| | Preservice childcare teach | 65 (92.9) | 5 (7.1) | 70 (100) | |
| | Total | | | | |
| | | | | | |

| | | 242 (93.8) | 16 (6.2) | 258 (100) | |
|-------------------------------|----------------------------|------------|------------|-----------|-------------|
| Biting | Childcare teache | 75 (39.9) | 113 (60.1) | 188 (100) | 3.08 (3) |
| | Preservice childcare teach | 27 (38.6) | 43 (61.4) | 70 (100) | |
| | Total | 102 (39.5) | 155 (60.5) | 258 (100) | |
| | | | | | |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Childcare teache | 125 (66.5) | 33 (33.5) | 188 (100) | 13.67 (3)** |
| | Preservice childcare teach | 30 (42.9) | 40 (57.1) | 70 (100) | |
| | Total | 155 (60.1) | 103 (39.9) | 258 (100) | |
| | | | | | |

** $p < 0.01$ *** $p < .001$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총 13가지 응급 상황에 따른 처치방법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출혈(상처)($\chi^2(2)=9.90, <.01$), 고열($\chi^2(4)=34.67, p<.001$), 심폐소생술($\chi^2(3)=13.67, p<.01$) 3가지 상황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육교사가 예비교사보다 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3가지 상황 중 보육교사와 예비교사 모두 오답률이 높은 상황으로는 끼임(81.4%), 중독(77.9%), 구토(73.6%), 물림(60.5%) 순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보육교사는 중독(80.3%), 끼임(79.8%), 구토(73.4%), 물림(60.1%) 순인데 반해, 예비교사는 끼임(85.7%), 구토(74.3%), 중독(71.4%), 물림(61.4%)순으로 나타나 각 변인 별로 차이를 나타났다.

3.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대처 인식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은 보육교사가 예비교사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보육교사가 예비유아교사보다 응급처치와 관련된 연수를 더 많이 받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행한 경험에서 도출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Hong[7]의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이 대부분 교사연수의 경험이 있고, 담당 반에서 1주일에 1-2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

로 나타나 이러한 현상이 안전교육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Kim, Lee와 Lim[13]의 연구, Hwang, Oh와 Cho[10]의 연구에서도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과 인식 및 개념은 밀접한 관련성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서 응급상황 교육은 받았으나 실제로는 당황할 것 같다는 답변은 Hong[7]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고, 실행의 어려움을 나타낸 Damjan & Rok[9]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보육교사의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상황과 동일한 실습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Moon[9]이 조사한 예비교사의 안전교육 실태 조사에서 안전에 대한 지식과 대처 능력이 보통 이하(2.83점)로 나타났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는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모른다는 답변이 17.1%만 나타났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도 100%가 알고 있다고 답변하여 10년 동안 예비교사의 응급 상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Kim의 연구에서 안전교육 강의 이수율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정적인 관계라는 결과와 연결하여 최근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강화에 따라 이수해야 할 교과목으로 아동안전관리, 아동건강교육이 선정된 영향도 있을 수 있다[15].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응급상황 인식에서는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답변이 차이를 나타내 보육교사는 별레나 사람에 물린 경우와 고열, 구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답변한데 반해 예비교사는 출혈과 고열, 구토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복지부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안전사고 원인 조사 결과 1-5세 영유아가 부딪힘 30.2%, 추락과 미끄러짐 30%로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였다[1]. 이에 대해 본 연구 결과는 보육교사가 자신이 경험한 상황을, 예비교사는 영유아의 특징을 근거로 예측한 답변을 하여 나타난 수치로 해석할 수 있다. 보육교사가 자주 경험하는 응급상황으로 비출혈, 복통, 구토 등으로 나타난 Hwang, Oh와 Cho[8]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안전사고의 발생 유형 및 경향을 보육교사와 예비교사 모두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폐소생술 인식 및 교육 참여 여부에 대해 예비교사는 100%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달리 보육교사 중 1.6%가 심폐소생술을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교육 참여여부에서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2.7%가 나타나 Yang과 Kwon[7]의 연구에서도 주장

한 바와 같이 보육교사 대상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처치 방법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총 13문항 중 출혈(상처), 고열, 심폐소생술의 3문항에 대해서만 보육교사의 정답율이 예비교사보다 높았고, 나머지 10문항은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예비교사 모두 오답률이 높은 상황은 끼임, 중독, 구토, 물림으로, 이러한 결과는 Lee와 Jo[6]의 연구에서 낙상, 추락, 출혈, 질식, 물림에 대한 응급처치방법은 잘 인식하였으나, 중독, 끼임, 협착, 고열, 구토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은 잘못 인식하였고, Kim, Park과 Yi [2]의 연구에서는 화상, 물림, 낙상, 추락은 잘 인식하였으나, 중독, 질식은 잘못 인식한 결과와 비교할 때, 물리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대상이 모두 현직교사인 데 반해, 본 연구는 보육교사와 예비교사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안전교육이수 및 현장 경험과 상관없이 특정한 응급처치방법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2, 6]의 연구와 시간의 차이를 비교해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 예비교사 모두 실제적인 응급처치방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 예비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나타낸 선행연구를 근거로 각 배경 변인과 인식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배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보육교사와 예비교사가 경험한 응급처치 교육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파악한 후 효과적인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달리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비교함으로써 예비교사부터 지속적인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보육교사와 예비교사 간의 인식 및 지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결과는 현재 보육교사가 이수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특히, 구체적인 응급처치상황별 교사의 이해도 및 실행도를 파악하여 이를 안전교육 내용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References

- [1] SafeKids Korea.
http://www.safekids.or.kr/content/content.php?cont=recor
d03_00&mode=1 (accessed September, 20, 2016)
- [2] S. Y. Kim, M. H. Park, & H. S. Yi, "The kindergarten
teachers' actual condition of first-aid educa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3, no. 1, pp.
91-114, 2006.
- [3] L. S. Jayalakshmi, "Mothers' awareness about accidents
among toddlers", *Nursing Journal of India*, vol. 95, no.
12, pp. 276-278, 2004.
-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Statistics on child
care programme. Issue Brief no. 11-1351000-000016-10), Seoul: Author, 2010.
- [5] I. S. Cho, *Organization culture and quality child-care
institution service*. Hankuk haksuljeongbo, 2007.
- [6] S. M. Lee, & M. S. Jo, "Early child care teachers'
treatment method on emergency situation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7, no. 4, pp. 55-80, 2010.
- [7] C. R. Hong, "The state of safety education of the baby
and infant education institution and the teachers'
understanding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safety
acci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2015.
- [8] Y. J. Yang, & I. S. Kwon, "Nursery teachers'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ability i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20, no. 4, pp. 304-313, 2014.
DOI: <https://doi.org/10.4094/chnr.2014.20.4.304>
- [9] S. Damjan, & F. Rok, "Kindergarten teachers and their
assistants' knowledge of first aid in slovenia kindergartens",
Health Education Journal. Advanced online publication,
DOI: <https://doi.org/10.1177/0017896912446555>
- [10] J. Y. Hwang, E. S. Oh, & K. J. Cho, "A study on the
self-confidence in performance and education demand of
first ad in kindergarten and decare center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 pp. 234-243,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234>
- [11] J. H. Moon, "A study on child safety education of
pre-service teache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hinl
University, Seoul, 2002.
- [12] D. H. Lee, Y. H. Choi & Y. J. Cheon, "Emergencies in
the kindergarten: Are kindergarten teachers adequately
trained to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Resuscitation*,
vol. 81, pp. 370.
DOI: <https://doi.org/10.1016/j.resuscitation.2009.11.026>
- [13] J. Y. Kim, H. Y. Lee & J. S. Lim, "A Stud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and Practice, Improvement
for Day Care Center's Safety",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6, no. 2, pp. 39-56, 2016.
DOI: <https://doi.org/10.21213/kjceec.2016.16.2.39>
- [14] J. H. Kim & L. K. Heo, "Relationship Between Safety
Knowledge and Safe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96, pp. 219-235, 2016.
- [15] S. H. Kim, "An Analysis of Safet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 Concept Map of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vol. 17, no. 3, pp. 443-465, 2016.
DOI: <https://doi.org/10.22154/JCLE.17.3.19>

육길나(Gil-La Yuk)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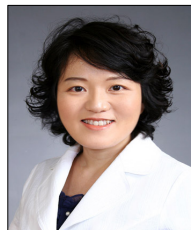
<관심분야>

유아교육, 아동문학

- 2002년 2월 : 배재대학교 배재
대학원 유아교육과(문학석사)
- 2009년 2월 : 배재대학교 배재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최경(Kyoung Choi)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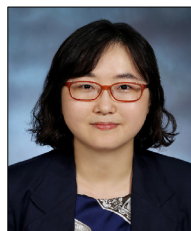
<관심분야>

미디어교육, 아동문학, 유아교육

- 1995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
과 (문학사)
- 1997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
과 (문학석사)
- 201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
과(철학박사)
- 2012년 3월 ~ 2016년 2월 : 송호
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대진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연혜민(Hye-Min Yeon)

[정회원]



<관심분야>

미디어교육, 아동문학, 유아교육

- 2007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
학원 유아교육전공(교육학석사)
- 2015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
과(철학박사)
- 2016년 4월 ~ 2017년 2월 : 송의
여자대학교 아동미술보육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